

## 공항인프라 확충 방식 대립 '첨예'

어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 국토부, 이미 포화상태... 제2공항 필요성 강조 비상도민회의, "현 공항 확충·주민투표 실시를"

제주 제2공항 공개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공항인프라 확충 방식과 관련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제주도는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 관련기사 3면 이번 1차 연속토론회는 좌장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주재로 의제인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수요, 수용력, 환경, 주민 수용성)'에 대해 진행됐으며, 찬성 측에서는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행정책획과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반대 측에서는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찬성 측은 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이며 안전 측면을 고려하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수용력, 환경, 주민 수용성'에 대해 진행됐으며, 찬성 측에서는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행정책획과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반대 측에서는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찬성 측은 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이며 안전 측면을 고려하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찬성 측은 "장래 수요를 고려할 때 기존 공항 확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2공항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환경수용정책은 상생방안으로, 안전문제는 공항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수용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아직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없어 반영이 힘든 실정이다. 제주에 맞는 관광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등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측은 현 공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며, 제2공항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인구 70만명의 섬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부적절하다. 세금 낭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확대, 환경파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항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도민에게 달려 있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이미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현재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며, 관광객·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높은 범죄율, 쓰레기 대란 등은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가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은기자

주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인구 70만명의 섬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부적절하다. 세금 낭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확대, 환경파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항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도민에게 달려 있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이미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현재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며, 관광객·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높은 범죄율, 쓰레기 대란 등은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가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은기자

### 방역·관광 '원인 프로젝트' 내국인관광객 유치 재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회생을 위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재개한다.

도는 관광업계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정정 제주'를 지켜낸다는 결의를 다지며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예방수칙 이행 등 안전관광을 전제로 한 자율적인 내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특히 최근 국내 많은 여행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음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협회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공정 관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특별 여행주간(7월 1~19일)에 대비한 관광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제주형 방역-관광 윈윈(WIN WIN)'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 차원의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방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온라인·디지털 등 비대면 콘텐츠 위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내년 9월로

코로나 등 고려 최종 결정 70개국·1500명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가 내년 9월로 재차 연기된다. 앞서 제주총회는 올해 9월 개최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11월 21~27일로 연기하기로 지난 4월 24일 결정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난 6월 30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 및 제주가 참

여한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 시기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9차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는 70여 개 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주총회는 코로나19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내년 9월로 최종 연기된다. 세계유산본부 등은 최근에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회 개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6월 1일 유네스코와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가 제

주총회와 관련한 특별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23일에는 제76차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를 열어 총회 개최 시기를 논의했다. 6월 26일에도 제주총회조직위원회에서 개최 시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계유산본부 등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으로 개최 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회의결과를 총회 홈페이지와 유네스코 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내년 9월 개최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라일보를 비롯 7개 언론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 5일까지 열리고 있다. 김현석기자

### 제주 특산품 전국 소비자 공략

제6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2일 개막 한라일보사 공동 주최... 도내 13개업체 참여 판로 확대

제주도를 비롯 전국 각 지역에서 특산 식품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현장 직거래를 통해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제6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2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홀에서 개막했다. 5일까지 나흘 간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한라일보와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부일보 등 7개 언론사가 공동 주최하며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290여개의 식품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350여개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비롯해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 남양제주 농업회사법인(주), 새오름영농조합법인 그린페블, (주)우영이엔티, 탐나라, 제주표고사리농장, 자활기업 제주고장, (주)제주팜이십업, 이맘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인투주식회사, 메리엠제이, 농업회사법인 제주황금꽃밭이 등 13개 업체가 나서 청정 제주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행사장에는 개막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성황을 이뤘다. 박람회 행사장 입장에 앞서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손소독, 방문자 인적사항 기록 등의 코

로나19 방역활동이 철저하게 이뤄졌다. 제주의 향토음식인 오메기떡을 굴·녹차·한라봉 크림 등을 넣어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제조해 팔고 있는 이맘주식회사 부스에는 오메기떡을 맛보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김정어 이맘주식회사 대표는 오메기떡을 잘게 썰어 관람객들에게 제공한 후 제품 설명을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해외 수출을 위한 바이어와의 계약 상담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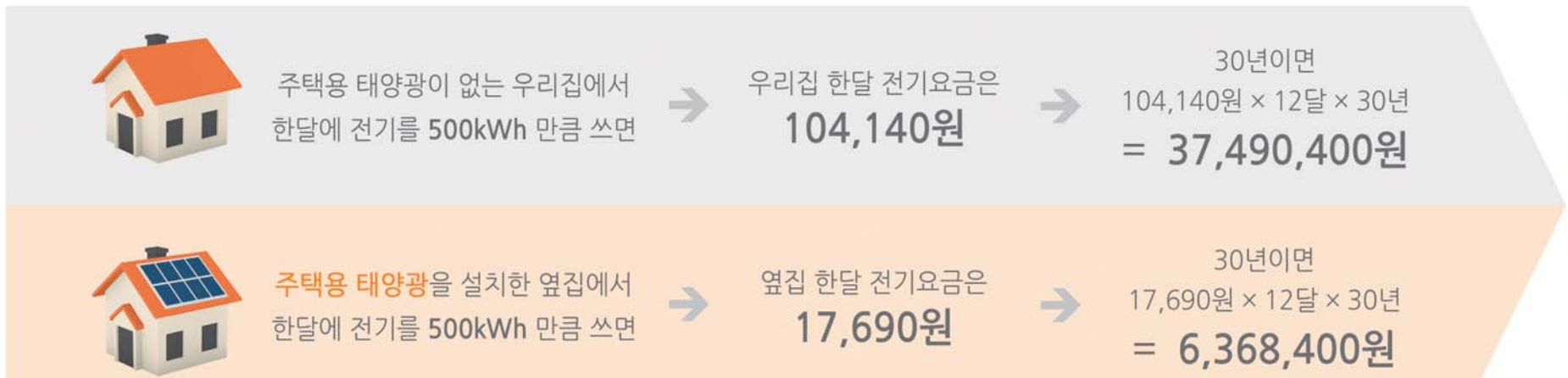
한라봉청 등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인투주식회사의 구윤본 대표는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위해 당도 조절 등 세부적인 내용을 상담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협의를 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또한 올해는 이전 행사와는 다르게 동시행사로 귀농·귀촌 행복박람회가 진행돼 지역별 귀농·귀촌 정보 공유 및 귀농·귀촌 상담회, 귀농·귀촌과 관련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부산 벡스코·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보통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 기준으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결과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